기술 2021-203

2021.04.22.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아이오케이컴퍼니(078860)

소비자서비스

요 약
기업현황
시장동향
기술분석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NICE평가정보(주)	작 성 자	유가영 연구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IR협의회

아이오케이컴퍼니(078860)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의 도약 시작

기업정보(2021/01/01 기준)	
대표자	장진우
설립일자	2000년 04월 26일
상장일자	2006년 06월 27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주요제품	엔터테인먼트 사업

시세정보(2021/04/16 기준)	
현재가(원)	3,105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1,817
발행주식수	58,545,827
52주 최고가(원)	3,525
52주 최저가(원)	1,305
외국인지분율	0.31%
주요주주	(주)포비스티앤씨

■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주력으로 안정적인 매출 시현

아이오케이컴퍼니(이하 동사)는 2000년 설립하여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ICT 사업, 외식 사업, 브랜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했으나 현재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주력으로 다른 사업은 모두 매각하였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꾸준히 매출 증가를 이루었는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6%의 매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동사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배우 중심의 BE 사업, 가수, 예능인 중심의 TN엔터 사업으로 분류되며 현재 40명의 아티스트가 소속되어 있다.

■ 아이에이치큐와 업무협약 체결,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동사는 배우 육성 전문 기업인 아이에치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매니지먼트 권한을 상호 위임해 각 사의 강점이 두드러지는 분야의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 아이에이치큐는 드라마, 예능 등의 제작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역량과 동사의 매니지먼트 기술 분야의 노하우를 공유하여 사업적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최근, 동사가 남자 아이돌 그룹 런칭을 발표한 만큼, 아이에치큐의 엔터 부문(싸이더스에이치큐) 대표 김창열(DJ DOC)과 다각도의 사업 확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 기업 규모 확장을 위한 소속 아티스트 확보

최근 6개월(2020.10~2021.03) 동안 6명의 배우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신예 윤상정, 서민주부터 배우 이성재, 유정호, 박건형, 김하늘 등이 동사 소속이다. 동사는 신인 발굴 및 육성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유명 배우를 통해 인지도 확보, 규모 확장 등을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장르를 소화해 온 배우 확보를 통해 콘텐츠 제작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SP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8	241	30.9	(42)	(17.4)	(134)	(55.6)	(16.6)	(12.0)	48.3	(408)	2,229	N/A	0.8
2019	276	(14.8)	4	1.6	(84)	(30.3)	(9.1)	(5.7)	41.4	(207)	2,036	N/A	0.8
2020	210	(24.1)	(30)	(14.1)	(17)	(8.3)	(4.0)	(1.2)	46.8	(63)	1,380	N/A	1.1

기업경쟁력

매니지먼트 노하우

■ 유명 아티스트 다수 보유

■ 2021년 기준 소속 아티스트 약 40명

아티스트와의 높은 신뢰도

■ 높은 신뢰도 바탕으로 오랜 관계 유지

- 고현정 2010년, 조인성 2012년 계약 체결,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관계 유지

■ 아나운서 김소영의 배우자 오상진 계약 체결

- 배우자 김소영의 추천으로 오상진 와이지엔터테인먼트에서 동사로 이적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핵심기술

■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 배우 중심의 BE 사업

■ 가수, 방송인 중심의 TN 엔터 사업

아티스트

BE 사업

고현정

조인성

TN 엔터 사업

이영자

김숙

장윤정

시장경쟁력

국내 콘텐츠 시장 전망

년도	산업 규모	비고
2018년	119조 원	전년 대비 5%▲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2019년	125조 원	

국내 OTT 시장 전망

년도	산업 규모	비고
2018년	5,136억 원	전년 대비 23.5%▲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21)
2019년	6,345억 원	

국내 방송산업 시장 전망

년도	산업 규모	비고
2018년	55조 1,325억 원	전년 대비 4%▲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2019년	57조 3,272억 원	

최근 변동사항

엔터테인먼트 사업역량 강화

■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도약

- ICT 사업, 외식 사업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 외 모든 사업 매각. 매니지먼트 및 방송, 영상 콘텐츠 사업, 음원 사업을 통해 종합 영상 콘텐츠 사업영역의 확대를 도모

■ 음원 사업부 출범

- 남자 아이돌 런칭 준비, 아이돌 출신 사내이사 영입

■ 아이에이치큐와 MOU 체결

- 매니지먼트, 드라마 및 영화 제작 등의 기술 노하우 공유, 사업 시너지 극대화

소속 아티스트 확보

■ 최근 중견, 신예 등 배우 다수 영입

- 박건형, 이성재, 김하늘, 윤상정, 정지소 등 배우 영입

Ⅰ. 기업현황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전문회사, 아이오케이컴퍼니

아이오케이컴퍼니는 배우, 개그맨, 아나운서, 예능인 등 다양한 분야의 연예인이 소속되어 있으며 종합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 개요

동사는 2000년 4월에 설립되었으며, 2006년 6월에 코스닥 상장하였다.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기반으로 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연기자, 예능인, 가수 등 다양한 방송인이 소속되어 있다.

표 1. 기업 현황

구분	내용	구분	내용
회사명	아이오케이컴퍼니	대표이사	장진우
설립일	2000년 04월 26일	상장일	2006년 06월 27일 (코스닥)
자본금	25,375백만 원	임직원 수	40명 (2020년 09월 기준)
주요 제품	엔터테인먼트 사업	주요 주주	(주)포비스티앤씨, 미래산업(주)
종속회사	(주)진에쿼티파트너스, 케이에이치글로벌, SBW인베스트먼트, 비오에이치조합		

*출처: 사업보고서(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주요 관계회사 및 최대주주

동사의 최대주주는 기존 지주회사인 (주)더블유홀딩컴퍼니에서 2020년 9월 (주)포비스티앤씨로 양도되며 변경되었다. 주식 양수를 통해 (주)포비스티앤씨는 동사의 지분 26.19%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사를 인수하였다. (주)포비스티앤씨는 1995년 설립되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고, 대표이사는 김종훈으로 (주)디모아 각자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그림 1. 주주 구성

*출처: 사업보고서(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표 2. 주요주주 현황

주요주주	지분율(%)
(주)포비스티앤씨	26.19
미래산업(주)	3.66
(주)더블유홀딩컴퍼니	9.38
기타	60.77
합계	100.00

*출처: 사업보고서(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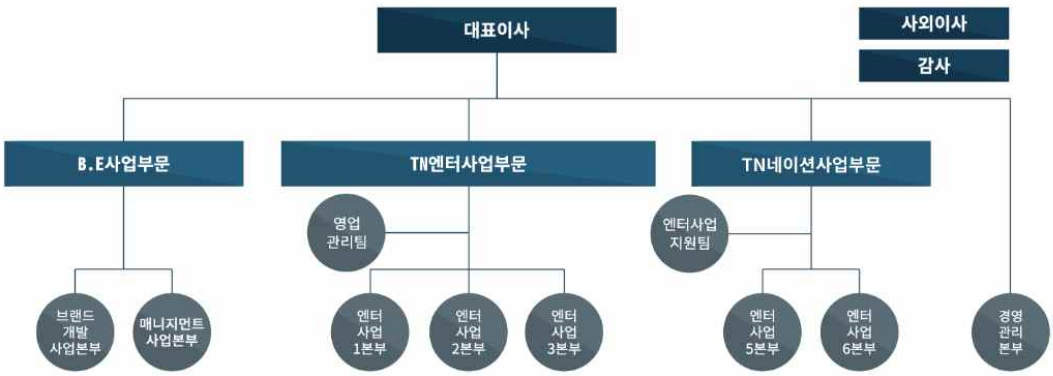
■ 대표이사 정보

2020년 9월부터 장진우 대표이사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장진우 대표이사는 (주)디모아에서 미래전략기획실 미디어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며 (주)Paulmichell Korea, (주)코스메트리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 주요 기술 역량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기반으로 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연기자가 소속된 BE(Branded Entertainment) 사업, 가수, 예능인, 아나운서 등이 소속된 TN엔터 사업 부문으로 구분된다.

그림 2. 조직도



*출처: 동사 홈페이지

▶▶ BE 사업

BE 사업 부문은 고현정, 조인성, 이성재, 김동원, 강우연 등이 소속되어 있으며 TV 드라마, 영화, 광고 등이 주요 시장이다. 스타 연기자의 활동 지속, 신인 연기자들의 성장을 통한 다양한 채널과 콘텐츠에서 활동이 주된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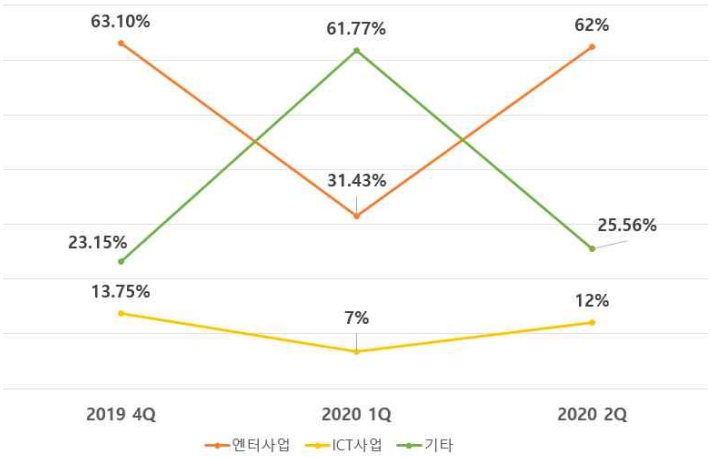
▶▶ TN엔터 사업

TN엔터 사업 부문은 2017년 (주)빌리프엔터테인먼트를 100% 인수하여 흡수합병하며 생긴 사업으로 장윤정, 이영자, 김숙, 문희준, 지석진 등이 소속되어 있다. 가수, 연기자, 개그맨, 요리사, 팝 칼럼니스트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상파 채널, 종합편성 채널의 예능 프로그램, 콘서트 등이 주요 시장이다.

■ 매출 비중

2020년 3분기 기준 주요 매출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전체 매출의 62%를 차지한다. 그 뒤로 ICT 사업이 12%, 기타가 2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3. 사업 별 매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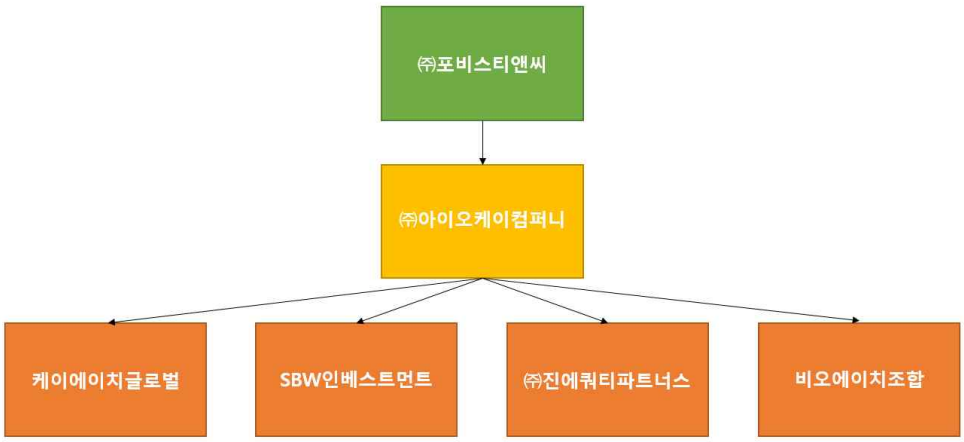
*참고: 2021년 ICT부문 포인트아이(주) 매각, 투자사업 신설

*출처: 동사 1분기보고서, 3분기보고서(2020),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신규 사업

동사는 2021년 엔터테인먼트에 집중하여 매니지먼트 및 방송, 영상 콘텐츠 사업, 음원 사업을 통해 종합 영상 콘텐츠 사업영역의 확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동사의 종속회사인 (주)진에쿼티파트너스 외에 투자업을 영위하는 케이에이치글로벌, SBW인베스트먼트, 비오에이치조합을 새로 인수하였으며 투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4. 지배구조



*출처: 사업보고서(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Ⅱ. 시장 동향

종합 영상 콘텐츠 사업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아이오케이컴퍼니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안정적 기반을 가지고 성장하는 콘텐츠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다.

■ 콘텐츠 산업의 성장세

방송, 영화 산업의 핵심은 콘텐츠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연기자, 가수, 예능인 등 아티스트에 달려 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방송인들을 발굴, 육성하고 관리하여 영화, 드라마, 광고, 예능 프로그램, 공연 등 다양한 대중매체 속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매니지먼트 산업은 방송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상호작용하고 있다. 매니지먼트 산업의 전방은 방송, 영화 등이며 해당 산업은 콘텐츠 산업에 속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 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106.1조 원에서 2019년 125.5조 원으로 연평균 5.7%의 매출성장을 보였으며 2020년 130.2조 원 규모로 예상된다.

그림 5. 콘텐츠 산업 시장규모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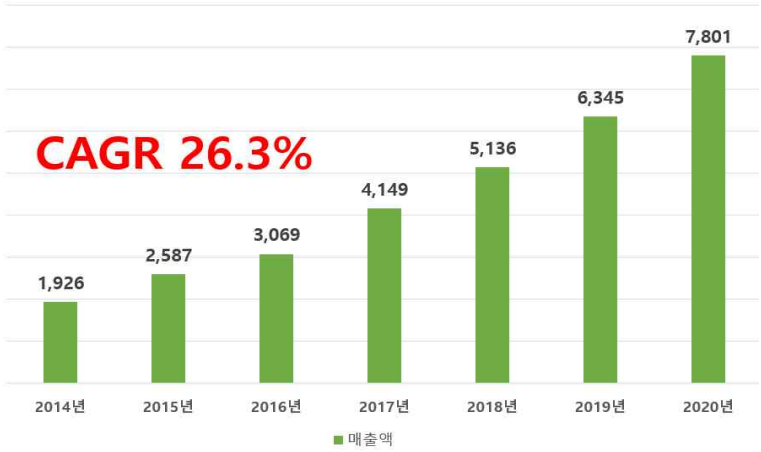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2020/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COVID-19의 여파에 따라 콘텐츠 산업은 위기에 직면하였으나 새로운 기회로 극복하고 있다. 오프라인 콘텐츠 이용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온라인에서 모색하고 있다. 영화계에서는 극장 대신 OTT(Over The Top)로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영화감독의 드라마 제작도 본격화되어 가고 있다.

■ OTT 플랫폼 시장으로의 트렌드 이동 가속화

OTT는 본래 셋톱박스를 통해서 제공되는 영상 서비스를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한 영상 콘텐츠 소비가 대중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셋톱박스의 유무와 상관없이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를 포괄하는 의미로 상용되고 있다. 최근, OTT 시장은 스마트폰의 성능과 5G 통신의 발달로 스마트폰을 통해 영상 콘텐츠 소비가 가능해지면서 급성장하고 있다. 나아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TV라는 하드웨어가 없어도 되는 OTT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OTT 시장규모는 2014년 1,926억 원에서 연평균 26.3% 성장하여 2020년 7,801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 OTT 산업 시장규모 **(단위: 억 원)**



*출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2020),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COVID-19에 의해 영화 산업 직격타

영화 산업은 COVID-19 사태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영화 산업은 2016년 1조 7,432억 원에서 2019년 1조 9,14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2020년 5억 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으며, 관객 수도 8년간 2억 명 이상이었으나 2020년은 6천만 명 수준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7. 영화 산업 시장규모 및 관객 수 현황 **(단위: 억 원, 백만 명)**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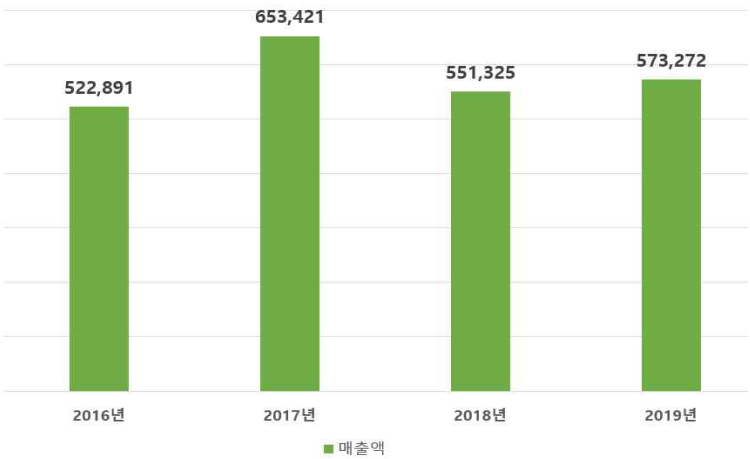
콘텐츠의 디지털화 트렌드에 따른 레거시 미디어의 부진과 맞물려 하락세를 보이던 극장용 영화 플랫폼 시장의 경우, COVID-19로 증가한 비대면 미디어 소비의 영향으로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넷플릭스로 대변되는 OTT 플랫폼 시장으로 소비자, 투자배급, 기획제작의 트렌드가 모두 이동하고 있으며, 기존 영화투자배급사들도 OTT 콘텐츠 제작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이미 시작하고 있으며 '사냥의 시간', '승리호'와 같이 극장용 영화를 기획했다가 OTT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환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성장이 기대되는 OTT 플랫폼 기반 방송 산업

방송 산업은 영화보다 빠르게 OTT 시장에 진입하여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한류의 재도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OTT 플랫폼을 통해 방송된 한국 방송 콘텐츠는 북미 지역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미국 주간지 옵저버에서 발표한 COVID-19 동안 가장 많이 시청된 넷플릭스 TV쇼에 따르면,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인 '사랑의 불시착'이 TV쇼 순위에서 6위를 차지하였고 일본 넷플릭스 TOP 10 TV 프로그램 1~3위도 한국 드라마로 확인됐다. OTT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한국 드라마 콘텐츠 이외에도 한국 프로야구와 같은 스포츠 콘텐츠를 미국 ESPN이 중계하는 등 방송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방송시장은 2016년 52조 2,891억 원, 2019년 52조 3,272억 원으로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TT 플랫폼의 활성화 이전에도 안정적인 시장을 유지하던 방송시장은 OTT 플랫폼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그림 8. 방송 산업 시장규모 **(단위: 억 원)**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2017, 2018, 2019, 2020),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광고하려는 플랫폼, 피하는 이용자

TV 광고가 소비자에게 맞춤 광고를 고민하는 사이 다수의 이용자를 확보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속속 광고창을 열거나 확대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쪼개기 편성을 통해 중간광고를 송출하여 시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규의 엄격한 적용과 정책 개선을 예고하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방송 광고 산업의 시장규모는 2014년 3조 3,047억 원에서 2019년 3조 9억 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OTT 플랫폼의 경우 광고를 띄우지 않는 요금제를 도입하여 큰 인기를 얻는 등 방송 광고 시장은 감소가 예상된다.

한편, 디지털 광고 시장은 COVID-19에도 큰 타격을 받지 않았으며 점차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페이스북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광고비 중 절반이 넘는 52%가 디지털 마케팅에 사용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방송 광고 시장은 맞춤형 광고를 통해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디지털 광고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의 행동에 따라 타겟팅 광고를 집행하는 것처럼 TV 광고에서도 가능해졌다. 다만, 시장성이나 타겟팅 정확도 측면에서는 허들이 남아 있어 연구개발을 통해 시장 감소 추세를 막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9. 방송 광고 산업 시장규모 (단위: 억 원)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2017, 2020),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Ⅲ. 기술분석

아이오케이컴퍼니, 엔터테인먼트 사업 집중

콘텐츠 다변화를 통해 규모의 성장, 실적 향상과 더불어 외식 사업, ICT 사업 부문 매각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준비를 완료하였다.

■ 엔터테인먼트 산업 특성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부문과 미디어 부문, 디지털 기술 부문으로 구분된다.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는 영화 및 애니메이션, 음반, 비디오, 게임, 출판, 잡지 등이며 미디어 부문은 지상파, 위성방송, 케이블 TV 등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콘텐츠를 표시하기 위한 매체를 디지털 기술 부문으로 구분한다. 정보통신 기술 발달과 인터넷의 확산에 따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미디어, 그리고 통신 등 디지털 기술이 융합되는 통합화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펼쳐지고 있는 다채널, 다매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사업 영역과 규모의 거대화가 필요하고 시너지 효과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콘텐츠 프로덕션 간의 제휴 및 합병을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 매니지먼트 사업

매니지먼트 산업은 신인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상품성을 높여 수익성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인지도가 높은 아티스트들에 대해 다양한 유통경로를 개발하여,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핵심 콘텐츠가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선순환되어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산업이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매니지먼트, 영화/애니메이션, 음반, 방송/드라마, 인터넷 사업 등으로 구성되고 동사는 이 중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드라마, 음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다수의 유명 연예인을 보유하고 있는 매니지먼트 사업을 핵심으로 하며, 관련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업무협약 체결, 연예인 확보 등을 진행하고 있다.

표 3. 주요 아티스트

분류	소속 아티스트
배우	고현정, 조인성, 이성재, 박건형, 정지소, 박준금, 김동원, 강우연, 윤상정 등
가수	장윤정, 문희준, 에반, 고재근, 조명섭 등
예능인	이영자, 김숙, 김지선, 정주리, 황현희, 지석진, 변정수, 문정원 등
전문가	김태훈, 이혜정, 최은경, 정지영, 김소영, 오상진, 김환 등

*출처: 동사,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배우 중심의 BE 사업

아티스트와의 장기적인 파트너쉽을 기반으로 다양하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TV 드라마, 영화, 광고 등을 주요 목표 시장으로 하고 있으며, 스타 연기자의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노력하고 신인 연기자들의 성장을 통한 다양한 채널과 콘텐츠에서 활동을 위해 양성하고 있다.

▶▶가수, 예능인 중심의 TN엔터 사업

가수, 개그맨, 요리사, 팝 칼럼니스트, 쇼호스트, 모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제공하고 있다. 지상파채널이나 종합편성채널의 예능 프로그램, 광고 및 공연, 콘서트 등이 주요 시장이며 향후, 예능, 광고에이전시 등의 관계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아티스트 활동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 새로운 플랫폼의 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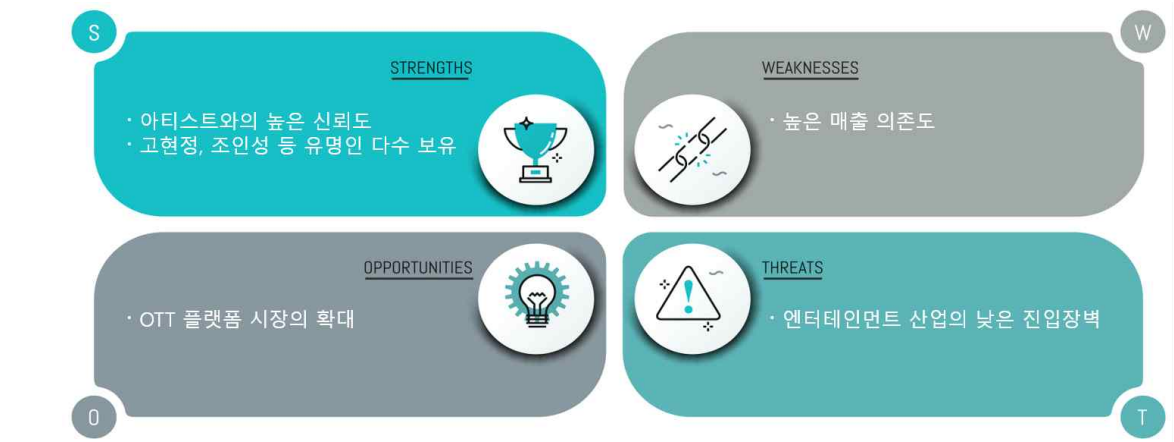
동사는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을 목표 시장으로 동시 진행하고 있다. 국내 시장은 기존 지상파 3사, 종편 및 CATV 사업자를 통한 콘텐츠 제작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속 아티스트들은 다양한 국내 콘텐츠에 출연하고 있다. OTT는 본래 셋톱박스를 통해서 제공되는 영상 서비스를 의미하는데 현재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한 영상 콘텐츠 소비가 대중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셋톱박스의 유무와 상관없이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채널과 같은 뉴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플랫폼의 출현은 주요 사업인 매니지먼트 사업에 소속된 아티스트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동사의 소속 배우인 조인성은 디즈니플러스에서 선보일 오리지널 콘텐츠 '무빙' 의 주연을 맡았으며 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 아티스트의 활동 영역 확대

소속 아티스트들이 기존과 다른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있다. 조인성은 인생 첫 고정 예능 프로그램인 tvN <어쩌다 사장>의 메인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코미디언 김숙은 <3도>, <7도> 등의 앨범을 발매했다. 이처럼 동사 소속의 아티스트는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콘텐츠에 참여하며 활동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는 BE 사업과 TN엔터 사업의 시너지 효과로 예상되며 향후, 동사의 콘텐츠 제작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SWOT 분석

그림 10. SWOT 분석



*출처: NICE평가정보(주)

▶▶ (Strong Point) 아티스트와의 높은 신뢰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네트워크가 중요한 부분이며 아티스트와의 신뢰도를 통해 거래를 유지한다. 고현정은 2010년, 조인성은 2012년 합류했으며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김소영의 추천으로 배우자인 오상진이 합류하는 등 동사의 매니지먼트 능력은 높은 신뢰도 유지라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Weakness Point) 높은 매출 의존도

동사는 기존에 영위하던 ICT 사업, 외식 사업 부문을 모두 매각하여 엔터테인먼트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다.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사업인 만큼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선택이었으나 해당 사업의 진입 장벽을 고려할 시 사업의 다각화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Opportunity Point) OTT 플랫폼 시장의 확대

COVID-19로 인해 주춤하던 드라마와 영화 산업이 OTT 플랫폼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나가고 있다. 영화관 이용이 어려운 만큼 OTT 플랫폼으로의 콘텐츠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용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TV, 영화관 외에 새로운 플랫폼들의 등장으로 기존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티스트의 작품 선택 폭도 더욱 넓어졌다. 비교적 콘텐츠 설정이 자유로운 OTT 플랫폼을 통해 아티스트의 다양한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Threat Point)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낮은 진입 장벽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상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며, 특별한 기술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낮은 진입 장벽을 형성하고 있다. 업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네트워크가 중요한데 동사는 해당 부분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꾸준히 유명 아티스트를 영입하고 있으며 신예 발굴의 힘쓰는 등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IV. 재무분석

엔터테인먼트 사업 통한 매출 시현

동사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로 최근 소속 연예인의 활동 위축으로 2020년 결산기준 전년대비 24.1% 감소한 210억 원의 매출을 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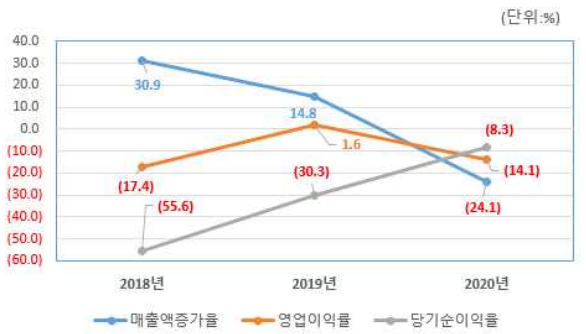
■ 매출 감소 및 미흡한 수익성 기록

동사는 연예인 매니지먼트사업을 기반으로 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로 COVID-19 발생에 따른 소속 배우 및 가수, 예능인들의 활동 위축으로 2018년 241억 원(30.9% YoY)에서 2019년 276억 원(14.8% YoY), 2020년 210억 원(-24.1% YoY)을 기록하며 매출 증가세 후 최근 1년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매출 감소에도 인건비 등의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이 가중되고 원가 부담이 확대되어 영업이익률이 2018년 -17.4%, 2019년 1.6%, 2020년 -14.1%, 순이익률은 2018년 -55.6%, 2019년 -30.3%, 2020년 -8.3%로 손실을 지속하며 미흡한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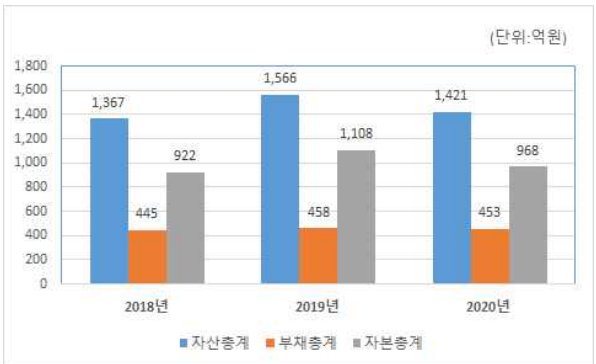
그림 11. 동사 연간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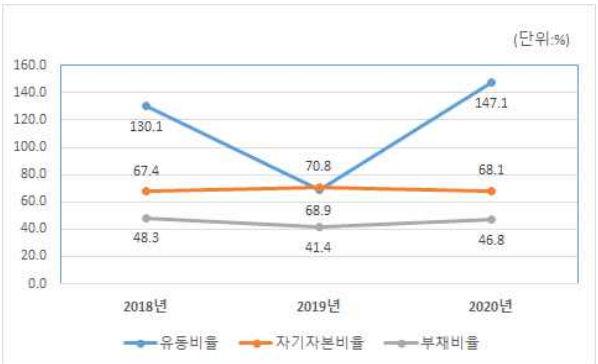


증가율/이익률 추이

그림 12. 동사 연간 재무상태표 분석



부채총계/자본총계/자산총계 추이



유동비율/자기자본비율/부채비율 추이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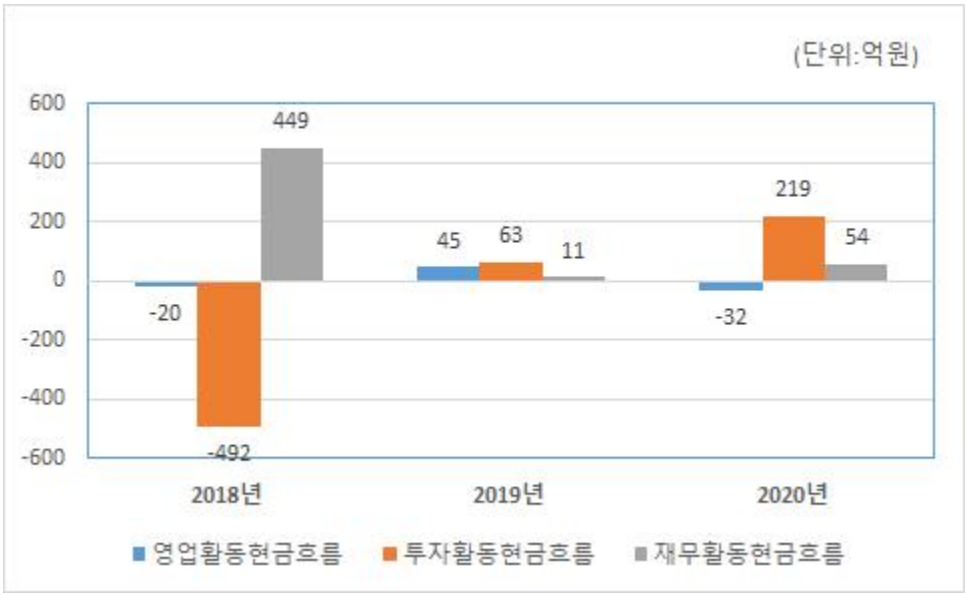
■ 양호한 재무구조 유지

동사의 재무안정성 측면에서는 차입금, 매입채무 증가로 부채규모가 확대되며 전년대비 저하된 재무구조(자기자본비율 68.1 %, 부채비율 46.8%, 차입금의존도 4.4%)를 나타냈으나 양호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 양호한 현금흐름 시현

2020년 순손실 발생과 선급금 증가, 미지급금 감소 등에 따른 운전자금 부담으로 -32억 원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나타냈으며 이에 따른 자금 부족분은 내부 자산 처분과 우선주 발생을 충당하며 미흡한 자금흐름을 나타냈다.

그림 13. 동사 현금흐름의 변화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콘텐츠 다변화 및 음원 사업부 출범 통한 동사의 실적 향상 전망

동사는 오리지널 콘텐츠 프로젝트 진행 및 신규 사업을 통해 콘텐츠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음원 사업부를 출범하여 본격적인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도약을 시작하였다.

■ ICT 사업, 외식 사업 매각

동사는 2020년 중 ICT 부문인 포인트아이(주)와 외식 사업인 (주)스카이팜 자회사를 매각 완료하였다. 2021년에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집중하여 글로벌 종합 영상 콘텐츠 사업영역의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오리지널 콘텐츠 프로젝트 진행과 신규사업으로 시즌제 콘텐츠 제작을 추진하고 있으며, 콘텐츠 다변화를 통해 규모의 성장과 실적 향상이 전망된다.

■ 아이에이치큐와 MOU 체결

아이에이치큐는 매니지먼트 사업부인 싸이더스에이치큐를 통해 장혁, 오연서, 엄기준 등이 소속되어 있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최근, 동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매니지먼트 권한을 상호 위임하여 각 사의 강점이 두드러지는 매니지먼트 분야의 노하우를 공유, 사업적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아이에이치큐는 전통의 배우 육성 기업으로 동사와 만나 기존의 매니지먼트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견고하게 강화하고, 드라마, 예능 등 제작 역량에 강점이 있어 급변하는 콘텐츠 시장의 흐름에 맞춘 신규 콘텐츠 사업과 MCN 등의 제작 사업 강화에 힘쓰며 동사와 동반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 배우 김하늘, 아이오케이컴퍼니 전속계약 체결

김하늘은 1996년 스톰 모델로 데뷔하였으며 1998년 영화 <바이 준>으로 영화계에 입문, 곧바로 SBS <해피투게더>, MBC <햇빛 속으로> 등의 드라마 주연으로 발탁되며 주목받았다. 이후, MBC <비밀>, <로망스>, SBS <피아노>, <온에어>, 영화 <동갑내기 과외하기>, <그녀를 믿지 마세요>, <7급 공무원> 등 출연하는 작품마다 인기몰이를 하며 최정상 배우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2011년 개봉한 스릴러 영화 <블라인드>를 통해 제32회 <청룡영화상>, 제48회 <대종상>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연기 스펙트럼을 인정받았다.

최근, 동사와 전속계약 소식을 알린 김하늘은 신중히 차기작을 검토 중이며,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선보일 예정이다. 동사는 올해 들어 윤상정, 이성재, 유정호, 김하늘 등 소속 아티스트를 확보하였으며 엔터테인먼트 사업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 음원 사업부 출범

동사는 음원 사업부를 출범하며 본격적인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도약을 시작했다.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글로벌 음원 사업과 뮤지션 관리를 위해 음원 사업부를 신규 사업부서로 신설했으며, 남자 아이돌 그룹 결성 및 런칭 등을 준비 중이다.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아이돌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가수 비아이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등 전문가를 영입하고 있다.

음원 사업부 신설은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동사의 2021년 첫 번째 행보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 최근 6개월 이내 발간 보고서 없음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출처: Kisvalue(2021.04.)